



이강인, 실력으로 벤투의 고집을 꺾다

U-20 월드컵 최우수선수상 '한국 축구 최고의 유망주' '수비 가담 부족' 이유로 A대표팀 명단에서 번번이 제외 최근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맹활약 벤투 감독 마음 돌려놓아 9월 A매치 평가전 대표 선발 ... 카타르행 이틀지 관심

'골든보이' 이강인(21·마요르카)이 '실력'으로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고집을 꺾었다. 벤투 감독은 1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코스타리카·카메룬)에 나갈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 반가운 이름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바로 한국 축구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이강인이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A대표팀에 처음 불러들인 '은사'이지만, 최근에는 그를 외면해왔다. 이강인은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출전해 2골 4도움의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한국의 준우승에 이바지하고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도 받았다. 이에 벤투 감독은 이강인에게 '활판'의 기회를 줬다.

2019년 3월 A매치에 나갈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강인을 포함했다. 18세 20일의 나이로 테극마크를 품은 이강인은 역대 7번째 '최연소 발탁'의 영광을 차지했다. 2019년 9월 조지아와 친선경기에서 A대표팀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은 6차례 A매치를 소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일본과 평가전에서 대표팀이 0-3 완패한 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더는 뽑지 않았다. 대표팀이 전반적으로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으나, 이강인의 부족한 수비 가담 등도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후 이강인은 연령별 대표팀으로부터만 부름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했고, 지난 5-6월에는 황선홍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



벤투 감독

안캅에 나섰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이 소속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때도 외면했다. 역대전적에서는 광주가 8승 7무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 시즌에도 3번의 맞대결에서 광주가 1승 2무를 기록했다. 이번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광주는 앞서서 우승 삼패인을 터트릴 수도 있다. 광주는 40라운드 휴식팀이 되면서 9월 26일 안산 전까지 쉬어간다. 반면 안양은 17일 충남아산전에 이어 21일 대전과의 순연 경기까지 치러야 한다. 만약 안양이 광주에 패한 뒤 아산전까지 내주면, 남은 5경기에서 전승을 하더라도 최고 승점은 77에 그치면서 광주의 우승이 확정된다. 광주는 39라운드 승리 후 느긋하게 안양의 경기를 지켜보겠다는 각오다. 이정호 감독은 "우승과 승격은 광주의 간접한 소망이다. 하지만 우리 팀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야 한다"며 "안양전이 중요하지만 승점을 위한 경기보다 팀이 성장할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 시즌 정규리그 5경기에서 최근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벤투 감독을 향한 '무력 시위'라 할 만하다. 특히 11일 레알 마드리드와 5라운드에서 베냐트 무리키의 선제골을 프리킥으로 킥기도 했다. 현재 이강인은 1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포르투갈 신성 주앙 벨릭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리그 도움 랭킹에서 공동 1위에 올라있다. 이강인은 공격뿐만 아니라 활동량과 단점으로 지적되던 수비 가담에서도 지난 시즌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다. 실력으로 벤투 감독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려놨지만, 아직 '합격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벤투 감독은 이날 이강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거의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선발한 이유는, 다른 선수를 선발한 이유와 동일하다"면서 "경기력, 우리 팀의 요구 사항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9월 두 차례 평가전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엔트리를 확정하기 전 치러지는 마지막 선수 테스트 무대다. 이강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 카타르행을 이틀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9월 A매치 벤투호 선수 명단

- 23일 오후 8시 코스타리카 (고양종합운동장)
- 27일 오후 8시 카메룬 (서울월드컵경기장)

FW
황의조(울림피아코스), 조규성(전북)
MF
정우영(알사드), 백승호(전북), 손준호(산둥 타이산), 황인범(울림피아코스), 이재성(마인츠), 권창훈(김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강인(마요르카), 송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나상호(서울), 양현준(강원)
DF
김민재(나폴리), 김영권-김태환(울산), 권경원(김바오사카), 조유민(대전하나시티즌), 김문환-김진수(전북), 윤종규(서울), 홍철(대구)
GK
김승규(알사바브), 조현우(울산), 송범근(전북)

연합뉴스

광주-안양 맞대결, K리그2 사실상 결승전

오늘 안양에서 39라운드 원정 광주FC 승리 팬 '매직넘버 1'

K리그2 결승전이 펼쳐진다. 광주FC가 14일 오후 7시 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안양을 상대로 K리그2 3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우승팀을 점쳐볼 수 있는 사실상의 결승전이다. 광주는 앞선 38라운드 전남드래곤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산드로의 '2골 1도움' 활약으로 3-2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75를 만들었다. 광주보다 두 경기를 덜 치른 안양에 13점 차 앞선 1위. 안양이 남은 7경기에서 전승을 달성할 경우, 광주는 남은 5경기에서 3승을 더하면 자력 우승을 이룰 수 있다. 이번 대결에서 광주가 안양을 상대로 승리를 챙긴다면 매직넘버는 1로 줄어든다. 우승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를 넘으려는 광주와 우승 가능성을 살리려는 안양의 사활을 건 승부다. 광주는 K리그2의 역사에도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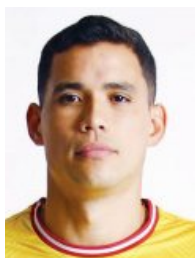
광주는 앞선 전남전 승리로 2019년 기록한 구단 최다승(21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22승 9무 4패로 승점 75를 채우면서 팀 최다 승점(기존 73) 기록도 만들었다. 이제 광주는 K리그2 역대 최다승과 최다승점에 도전한다. 현재까지는 경남FC의 24승 7무 5패(승점 79)가 K리그2 최고의 기록이다. 광주가 남은 경기에서 2승 이상을 기록하면 K리그 승강제 10년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성적을 작성한 팀이 된다. 전남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이룬 정에 뎀버가 그대로 그라운드에 오른다. K리그 적응을 끝낸 산드로는 차원이 다른 실력을 보여주면서 38라운드 MVP에도 등극했다.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린 두현석과 이민기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순민이 경계에서 돌아왔고, 체력 안배를 한 김중우와 하승운도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6월 11일 안양전에서 광주는 4-0 대승을 거뒀다. 광주에 대패를 기록했던 안양은 이후 15경기에서 무패행진(10승 5무)을 이어가며 2위에 자리했다.

백성동, 김동진, 백동규, 주현우 등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 속에 아코스티, 조나만, 안드리고 등 외국 선수들의 움직임도 매섭다. 이번 대결에서는 광주가 8승 7무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 시즌에도 3번의 맞대결에서 광주가 1승 2무를 기록했다. 이번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광주는 앞서서 우승 삼패인을 터트릴 수도 있다. 광주는 40라운드 휴식팀이 되면서 9월 26일 안산 전까지 쉬어간다. 반면 안양은 17일 충남아산전에 이어 21일 대전과의 순연 경기까지 치러야 한다. 만약 안양이 광주에 패한 뒤 아산전까지 내주면, 남은 5경기에서 전승을 하더라도 최고 승점은 77에 그치면서 광주의 우승이 확정된다. 광주는 39라운드 승리 후 느긋하게 안양의 경기를 지켜보겠다는 각오다. 이정호 감독은 "우승과 승격은 광주의 간접한 소망이다. 하지만 우리 팀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야 한다"며 "안양전이 중요하지만 승점을 위한 경기보다 팀이 성장할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산드로 K리그2 38라운드 MVP

'2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친 광주FC의 산드로(사진)가 K리그2 38라운드 MVP에 등극했다.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3-2 역전승을 합작한 두현석과 이민기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K리그 38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전남과의 원정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장식한 산드로가 MVP가 됐다. <K리그2 38라운드 베스트 11

산드로는 0-1로 뒤진 전반 25분 허울이 머리로 넘겨준 공을 받아 왼발로 동점골을 장식했다. 전반 39분에는 힐패스로 이민기의 시즌 첫 골이자 역전골을 도왔다. 산드로는 또 후반 시작과 함께 두현석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멀티골에 성공했다. 38라운드 베스트팀은 서울이랜드가 됐다. <K리그2 38라운드 베스트 11



▲MVP: 산드로(광주) ▲FW: 산드로, 티아고(안산), 이동률(서울E) ▲MF: 두현석(광주), 이상현(부산), 에드워즈(부산) ▲DF: 이민기(광주), 김연수(서울E), 조유민(대전), 서보민(서울E) ▲GK: 윤보상(서울E) ▲베스트 팀: 서울E ▲베스트 매치: 부천(3) vs (3)안산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10월 8일 KT와 안방서 최종전

KBO, 시즌 잔여경기 일정 확정



KBO 잔여 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KIA 타이거즈는 10월 8일 KT 위즈와 안방에서 올 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13일 KBO가 2022시즌 잔여경기일정을 발표했다. 미평전이었던 5경기과 우천 순연 경기 등을 포함한 50경기가 오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 KIA는 10경기가 잔여 경기 일정으로 편성됐다. KIA는 22-23일 창원에서 기존에 편성된 2연전을 소화한 뒤 앞서 우천으로 치러지 못했던 한 경기를 24일에 치르면서 NC 다이노스와의 올 시즌 맞대결을 마무리한다. 이후 대구로 이동해 25일 삼성 라이온즈와 최종전을 벌인다. 27-28일 휴식일을 보낸 KIA는 29일 광주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시즌 16차전을 소화하고, 30일 다시 쉰다. 10월 1일 SSG 랜더스와 안방에서 만나고, 이어 대전으로 이동해 2일 한화이글스와의 최종전을 치른다. 월요일인 3일에는 잠실 구장의 조명탑이 밝혀진다. 이날 KIA는 LG 트윈스를 상대로 올 시즌 잠실 마지막 경기를 소화한다. 이어 4일 휴식 뒤 장소를 바꿔 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 2연전을 벌이게 된다. 5-6일 LG와의 홈경기가 진행되고, 7-8일 KT와 2022시즌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우천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예비일로 편성되고, 예비일이 없을 경우에는 24일 이후 동일 대전 두 번째 날 더블헤더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일 대전이 없으면 추후 편성된다. 또 20일 이후 취소된 경기의 예비일이 없으면 재편성 방식이 달라진다. 다음 날 경기가 동일 대전일 경우 더블헤더가 편성되며, 동일 대전이 아닐 경우 ▲동일 대전 두 번째 날 더블헤더 ▲추후 편성 순으로 재편성된다. 더블헤더 1차전은 평일 오후 3시, 주말(토·일요일)·공휴일 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2차전은 평일 오후 6시 30분, 주말·공휴일은 오후 5시에 열린다. 1차전이 취소되거나 일찍 종료되더라도 2차전은 예정된 시간에 시작된다. 단 1차전이 평일 기준 오후 6시, 주말·공휴일 기준 오후 4시 30분에 끝나면 종료 30분 후에 2차전이 열린다. 복수의 예비일이 편성된 경기가 취소되면, 가장 가까운 예비일로부터 우선 편성된다. 예비일, 더블헤더 편성 등으로 인한 팀의 연전은 최대 9연전까지만 가능하다. 또 연기되는 잔여 경기가 포스트시즌 각 시리즈와 관계없는 대전일 경우에는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 또는 포스트시즌 기간에도 경기가 진행된다. 한편 KIA는 지난 11일 원정 경기를 끝으로 두산 베어스와의 올 시즌 16차전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성적은 9승 7패로 KIA가 우위를 점했다. 가장 많은 경기가 남은 팀은 LG로 5번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다. 김중국 감독은 "5월부터 두산에 강한 면을 보였다. 몇 년 만에 두산에 우세했다. 남은 시리즈에서도 우승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경기, 한 경기 순위 싸움이 치열한 것 같다. 다른 분들은 (5위) 여유 있다고 하시는데 절대 여유 있는 것은 아니다. 밑에 팀들 보다는 우리 팀 한 경기 한 경기만 신경 쓰면서 하려고 한다. 부상 선수 변수를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